

2019. 04. 18 (목) 1교시
2학년 4반 4월 독서토론

조이름 : 소린조

조장 : 유소린

조원 : 이주연, 양정희, 함은혜, 김바다, 멩하늘

도서명	데미안
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	
<p>서른대 권장도서라서 한 번쯤 읽어보고 싶었다.</p>	
독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	
<p>김 : 난 진정 . 내 안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, 그것을 삼켜보려 했다 . 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양 : "무엇이든 '우연히' 발견되고, '우연히' 시작되는 것은 없다. 유 : 하루종일 내면의 소리,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아득한 강물 소리에 귀 기울였다. 이 :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. 함 : 내 천재이자 저주받은 데미안과 같은 내 자신이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다. 멩 :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와 그 후에야 다시 믿음의 빛조금기가 내리고 갈등 없는 조용하고 고요한 행복이 몇 시간 혹은 짧은 순간 돌아온 했다.</p>	

도서 중 가장 와 닿지 않았던 부분(글쓴이의 생각과 달랐던 구절)과 그 이유

양: 나는 단지 그 야릇한 가운 위에 몸을 굽히기만 하면 되었다.

이: 내 잘못을 모두 배반하고 용서를 빌면 내 고통은 덜어지겠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히 구원해 줄 수는 없다.

행: 비참함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해방과 몸 같은 무엇을 느꼈다.

김: 구원의 손길을 전하며 기쁨을 이룬다면 사랑을 금방 잊어버린 것이다

유: 우리가 어떤 사랑을 미워하는 것은 그리 정상 속에서 우리를 자신의 내부에 숨어 있는 그 무엇인가를 미워하는 것이다.

방: 언제나 그랬듯이 똑같이 나아들이 보이는 동시에 똑같이 깎여나갔다.

전체적으로 느낀 점

유 : 종래라 감명을 동반한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었다.

미 : 자연의 순리대로 태어나는 것 같은 새로 노력한다는 말이 마음에 다 닿아서 이 책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.

황 : 싱글레미워 찬란한 데미안이 존경스러웠다.

양 :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솔직히 신 땀에 없지 않을까? 라고 생각했어.

김 : 각자의 복잡한 내면세계가 책 속에 녹아 있다는 게 신기했어.

맹 : 처음엔 읽기 어려웠지만 다 읽어서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이었다.

이: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게 살아야겠다.

황: 나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.

양: 나의 내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겠다.

민: 정직하게 살아야겠다.

김: 다른 사람에게 멘토라 같은 역할이 되어주고 싶다.

유: 허영심 없이라도 꺼지지 않는 도전해보아야겠다.

조장이 하고 싶은 질문 & 총평

Q. 작가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 했을까요?

A. 우리가 사는 아픔은 양극한 성인이 되기 위해 내면의 가치를 찾는 과정이다.

Q. 작가와 면담을 한다면 물어보고 싶은 내용!

A. 데이안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?

총평

처음 책을 접할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책을 다 읽은 뒤 나이 내면세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, 복합한 내면세계를
카리스 있는 청소년에게 한 번쯤은 꼭 읽어야 하는 책이다.



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해

깊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